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2일 화요일 음 4월 20일 (12월)

기상정보

호림



제주도는 새벽에 흐린 날씨를 보이다 아침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16℃, 낮 최고 기온은 20-24℃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물때) and Weather (달돋, 달짐, 간조, 만조)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맑음, 흐림) with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and Information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中, 미국 코로나19 백신 해킹” 주장 제기

중국 해커 경고문 발표 예정

세계 각국이 해킹을 통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치료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는 '백신과 치료, 검사 등에 관련된 귀중한 지적 재산과 공공 보건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내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의 해커도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공료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경고문이 나올 경우 양국 긴장문은 전세계 10여개 국가가 균



미중 사이버전쟁 일러스트.

사·정보기관의 해커를 바이러스 대응에 재배치했다고 민간 안보 업체를 인용해 주장했다. 여기에는 해커뿐만 아니라 학계나 민간 연구소 연구원, 학생과 같이 정부 요원이 아닌 주체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고는 미국 사이버사령부(USCC)와 국가안전보장국(NSA) 등이 개입된 대외 억제력 강화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의 국영 해커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이번 경고문이 나올 경우 양국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한라칼럼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삼시간에 운명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 심지어 선진국들마저도 사상 초유의 세계적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인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꽤 성공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중이다. 국난 극복시마다 드러나는 우리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합쳐진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대재난을 함께 이겨내면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긍지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코로나 종식은 아직 멀고 재확산 가능성도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일상의 재난을 생각하며

있지만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위기도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이천 화재가 들려 있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를 자부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성숙한 게 맞는지. 이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게다가 2008년에 비슷한 화재가 있었던 만큼 당시 해당 기업에게 책임이 제대로 묻고 산재 예방 제도를 정비하여 잘 준수했다면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발생까지 막을 수 없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고투에 비하면 이 일상의 재난은 예측 가능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다지도 무신

경했고 그 결과 뼈아픈 실수를 거듭하고만 있다.

예전에 우연히 스치듯 본 책 줄거리가 요새 자꾸만 떠오른다. 신이 이기적인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한 인간의 수명을 전혀 모르는 다른 인간과 짝을 지어 삶을 동시에 마감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책의 세계 부호들과 권력자들은 자신과 같은 운명일지 모를 그 누군가가 헛되게 죽지 않도록 전 세계 기아와 질병, 빈곤 문제에 사활을 건다. 인류의 난제가 인간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심으로 해결된다는 역설적 결론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당시 씩씩웃기만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기상천외한 그 가상 스토리가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정부 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도 있었겠지만 언젠가 자

신에게 올 피해와 위협을 차단하곤 게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도 예외 없이 모두를 위협하기에,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가능한 온 힘을 모은 것 같다. 자신의 안위에는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우리 이웃 취약계층의 도처에 널린 일상의 재난과 사고에는 그만큼 관심을 두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도 방치하고만 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내 일이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온갖 위험과 부조리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입증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드러낸 대한민국의 역량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그 힘이 정착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관심과 시선을 모으고 집중할 때다.

열린마당

어려움 속 빛나는 여성농업인



이미숙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여성이야말로 제주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바다 속의 흙을 삼으로 떠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제주 여성들에 관한 설화를 담은 설문대할망, 전 재산을 내놓아 제주도 백성을 구출했던 김만덕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제주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제주에서 자정비는 제주도 전통문화인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농사의 여신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거쳐 사랑을 쟁취하고 전쟁에서 난을 진압하기도 하며 농사의 신이 되는 주관이 뚜렷하고 강인한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제주문화 속 제주문화와 역사 속에서 제주 여성의 역할은 강하면서 희망적이다. 현재 제주 전통문화와 농업농촌을

연계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해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 현장에도 여성농업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는 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농촌여성단체다.

생활개선회원들은 배우고 익힌 역량을 심본 발휘해 재능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회원 역량강화 교육활동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지도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 감염 확산방지 방역 봉사, 마스크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제주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어려운 현장에서 농업농촌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행복한 농업농촌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빛나는 여성농업인들이 있기에 일상의 사회적 '따뜻함'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5G 시대, 새로운 '청렴 5GO'



고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차지행정과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사상가 톨스토이가 한 말로 청렴의 대표적인 명언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상도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과 '예'를 중시해서 추석이나 명절 또는 큰일이나 사안이 있을 때 정과 예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받아 왔다. 그렇지 않으면 '정'이 없다'거나 '예의 없다'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해 왔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선물 주고받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시 돼

왔다. 공무원들도 이런 관행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가 급변했다. 예를 들면, 선물 안주고 안 받기라든지, 청탁 및 접대 안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만 실천을 잘하면 청렴한가?

앞서 언급 했듯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특히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상은 높아졌다. 즉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상을 갖추기 위해 '청렴 5GO' 실천을 제안한다.

이는 청렴하고 싶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첫번째, 모두에게 미소짓GO, 두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GO, 세번째, 상대에게 친절하GO, 네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GO,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실천하GO이다. 시작만으로도 절반이 성공인 것처럼, 우리 모두 '청렴 5GO'를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깨끗한 세상', '살맛나는 세상'은 바로 내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dvertisement for Hanra Transcom (주) featuring satellite communication and network service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주) featuring IT solution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Office (서귀포시정 소식) regarding public inform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ju Agricultural Extension (주간농업농촌소식) regarding agricultural news and services.